



양지숙(뒷줄 왼쪽)양이 '2007년 WISE 전국 여고생 연구 발표대회' 참가 팀 동료인 김진영(앞)·박문영양과 함께 학교 생물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상 받은 광주 상무고 양지숙 양

“과학 이렇게 재미있는데 기피라니요”

요즘 고등학교 이과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이라든 대개 의·치·한의대 진학을 노린다. 하지만 미래의 생물공학자를 꿈꾸며 과학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별난 학생(?)'이 있다. 광주상무고 2학년 양지숙양이 주인공이다. 1학년 때 내신 1등급의 성적을 올려 이른바 '최상위권'인 양 양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박문영(3년)·김진영(2년)양과 '광주상무고팀'을 꾸려 최근 서울이화여대에서 열린 '2007년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전국 여고생 연구 발표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상을 받았다.

구캠프에 참가한 6개팀이 지역 예선대회를 벌여 광주상무고·경신여고·순천제일고 등 3개팀이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서 지난 2005년부터 WISE 사업을 본격 추진, 이공계열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들과 여성과학기술자를 1대 1로 연결해 맞춤형 지원 교육을 펼치고 있다.

솔잎 천연제품 개발 가능성 제시

양 양은 이번 대회에서 분자생물공학 기법을 이용한 천연물의 기능분석이란 연구를 통해 솔잎 추출액의 항균·노화방지·혈전분해 기능을 입증했다. 특히 피부미용에 가장 관심이 많은 여고생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솔잎 추출액이 함유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솔잎을 활용한 친환경적 천연제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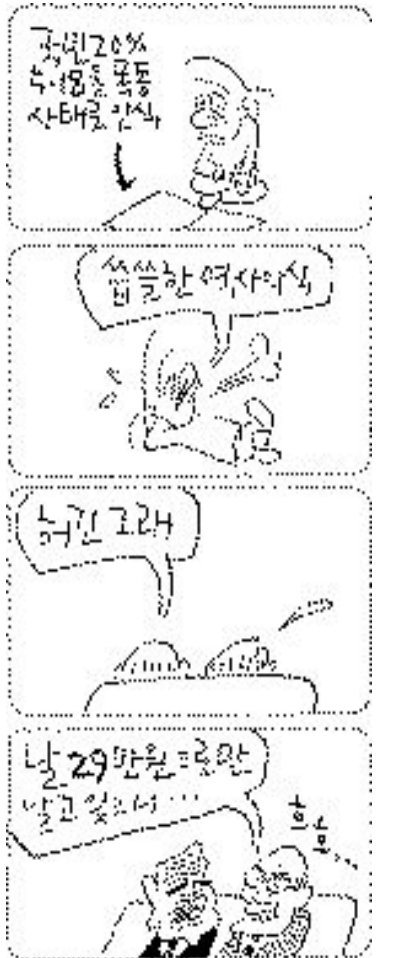
양 양의 꿈은 생명공학 연구원이 되는 것. 초·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과학이 너무 싫었고 막연히 변호사가 좋아보여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 과학동아리 '사이러스'에서 활동하

면서 꿈이 바뀌었다. 20여명의 회원들과 과학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이 친숙하게 다가온 것. 특히 WISE 연구캠프에 참여해 전국대회에서 입상까지 하면서 과학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다.

양 양은 “부모님은 아직도 '전망이 밝은' 의·치·한의대 진학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나의 적성이 생물이나 생물공학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명문대학이 아니더라도 생물공학이나 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역량을 지닌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 연구원 꿈 키워

양 양은 또 “또래 애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것은 이공계 학문의 속성상 추상적인 길을 찾는 모험이 수반돼 불안감이 큰 데다 장애보장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라면 젊어서라도 이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할머니 성폭행 미군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66세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간강상해)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레스(23)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자기 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의 문화상으로는 고령의 할머니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

는 보다 더 비단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는 당시의 악몽 같은 상황을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감정을 고려한 징역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과거 전과가 없는 점, 한국에서 군 복무기간이 끝나 송별회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성범죄였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봄맞이 대청소 광주시 남구청(청장 황일봉)은 제15회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앞두고 9일 공무원, 미화요원,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항동 제·수촌1제·대촌천 등 관내 생태호수 주변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험문제 유출...1월 SAT 무효 처리

미국 교육평가원(ETS)은 9일 한국 고사장에서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1월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의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유잉 ETS 홍보담당관은 이날 국내 홍보대행사인 에델만코리아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ETS는 지난 1월 SAT Reasoning(SAT1) 테스트를 한국에서 본 응시생 900여명의 시험 성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27일 실시된 SAT1 시험에서 2005년 12월 SAT1과 똑같은 문제가 나와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서 일부 국내 수험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SAT 시험 출제기관

인 ETS와 주관처인 미국 칼리지보드 등은 그동안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진상 조사를 맡은 ETS 시험윤리실(Office of Testing Integrity) 측은 한국의 일부 SAT 시험 준비학원들이 수험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TS 시험윤리실 레이 니코시아 대표는 “시험문제 유출이 한국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TS는 1월 시험 성적이 취소된 국내 응시자들에게 3월31일, 5월5일, 6월2일 시험에 무료로 재응시할 기회를 주거나 1월 시험 수수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관련 직원 등 3명 구속

여수 경찰청은 8일 상항 근무를 소홀히 해 27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임모(43·6급), 오모(36·7급), 옹역 경비원 조모(51)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날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일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작 전 화재경보기 작동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근무 시간임에도 대리 근무자를 지정한 채 자신은 당직실에서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감시실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동 상황실에서 책을 보면서 모니터조차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화재 발생시 외국인의 도주를 막는 데 지중, 인명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원 조씨는 외국인 보호시설 감시실에서 중국 동포 김모(39·사방)씨가 방화 직전 폐쇄회로(CC)TV 렌즈에 화장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하는 등 경비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관리과장 김모(55·5급)씨는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려 불구속 입건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아파트, 그 씩씩한 단절

독거노인 숨진지 20여일 만에 발견 지병을 앓던 60대 독거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9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J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사는 정모(여·6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급대가 발견했다. 이웃 주민 김모(55)씨는 “정씨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정씨 동생(58)의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아갔는데 인기척도 없고 악취가 심하게 나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은 잠긴 문을 개방했으며, 정씨는 집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 정씨는 아들이 10여년 전에 숨진 뒤 이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왔으며,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정씨가 지난달 중순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아 동생집에 가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과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정씨가 숨진 지 20여일 가량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씨의 병세 악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 무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14년간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다 경영상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난이도 등급화...길거리 청소 '사각지대' 없앤다

광주시 광산구 1~4등급 세분화 부족한 환경미화원 효율적 활용 광주의 한 구청에서 길거리의 청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내 길거리의 청소 난이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부족한 미화원력에 따른 거리 청소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주요 길거리의 청소 난이도를 등급화하고 있다. 광산구 관내 길거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은 9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 소속 미화원은 모두 60명. 청소 수요에 비해 미화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청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필요한 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서울 FTA 반대 집회 400여명 상경 예정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소속 농민·노동자 등이 주말인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석키로 해 원전봉쇄에 나설 계획인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과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에 따르면 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농민·노동자·학생 등 400여명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상경을 원전봉쇄하는 한편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의 상경을 저지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산 나무에 목매 40대 숨진채 발견

9일 오전 8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산물공관장 인근 야산에서 최모(4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가 4m높이의 나무가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생(39)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최씨의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근처에는 술병이 놓여있었다. 철골 작업 일을 했던 최씨는 평소에도 “괴롭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특별한 의상이 없고 유서를 써놓은 수첩이 발견됨에 따라 자살로 추정하고 있지만, 손과 발이 모두 묶인 점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March 10th (Sun) and March 11th (Mon). Includes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detailed weather map of Korea.

Advertisement for a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course, mentioning '대학 신입생' and '속독'.